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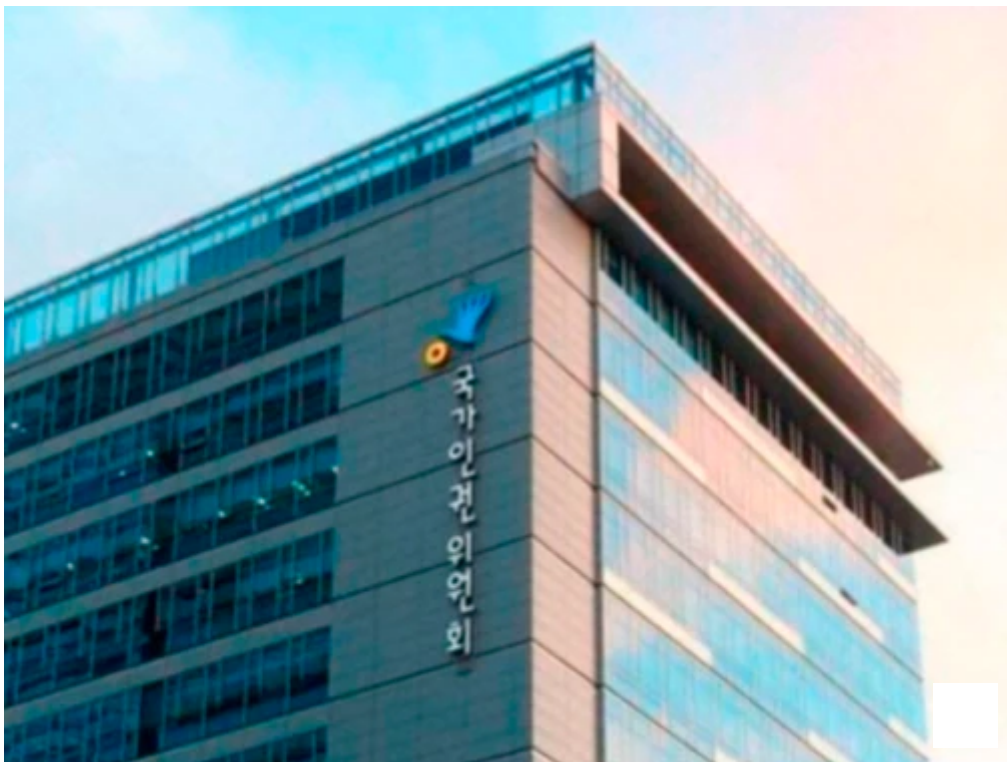
사회 >

국민 40% 이상 “인권침해·차별 심각하다”...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

인권위, 21일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
차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‘경제적 빈곤층’

이학준 기자

입력 2021.12.21 12:00



국가인권위원회 전경.

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
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올해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1.8%,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7.4%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.

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30.4% 대비 11.4%포인트(p) 증가했고, 차별이 심각하다는 답변은 지난해보다 13.7%p 증가했다.

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에 대해서는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답변이 35.6%, 장애인이라는 답변이 32.9%로 집계됐다. 그밖에 이주민은 22.3%, 학력·학벌이 낮은 사람은 16.7%로 나타났다.

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검찰·경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.7%로 가장 많았다.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6.4%p 감소한 수치다. 반면 군대는 5.4%p, 보호시설은 7.9%p 증가했다.

직장 상사나 상급자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29%로 가장 많았다. 그밖에 이웃·동호회 등 내가 속한 집단은 16.1%,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는 13% 순서다.

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2.8%로 대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‘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’라는 응답이 33.9%였다.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21.8%,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는 21.6% 등이다.

한편 설문조사 참여자 중 78.6%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시 신상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함을 느꼈다. 54.8%는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,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로는 TV·라디오가 49.6%로 가장 많았다. 온라인은 38.4%, 인터넷 방송은 36.7%, 친구·가족·지인은 19%였다.

혐오 표현 대상으로는 정치인이 39.7%로 가장 많았다. 여성은 32.1%, 성소수자는 28.5%, 특정 종교인은 27%, 연예인은 23.6%였다.

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2019년부터 3년 동안 축적한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, 관련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.

토론회는 ‘국가인권실태조사로 본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’와 ‘통계로 보는 한국의 인권’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될 방침이다.